

# 齒協 30年史

第1次 資料 蒐集草稿

## 資料 編 (16)

齒協歷史編纂委員會 提供

### 大韓齒科醫師會 第6回 定期總會

◇..... 大韓齒科醫師會 第6回 定期總會는 1957年 5月 11日 上午 11時부터 서울.....◇  
◇.....齒科大學 大講堂에서 金溶璠會長以下 任員을 爲始하여 中央委員 및 代議員.....◇  
◇.....으로 .....◇

- <서울> 李東煥, 車尙駿, 鄭五相, 李喜炳, 韓忠集, 李壽景, 張錫煥, 徐丙瑞, 徐炳益, 文洪祚, 李順伊,
- <慶南> 金昌圭, 金淳培, 金相識, 許泰雲, 秋玉燁, 姜德仁, 高相穆, 宋允玉
- <慶北> 崔海雲, 秋章燁, 金鏞泳, 曹信明, 白龍鳳, 李烈熙, 朴來榮, 委任狀, 金義柱, 金泰漢, 朴在奎
- <京畿> 金鎔銜
- <忠南> 任甯燁, 李暉寅
- <全南> 股仲基, 朴永台, 李清鍊, 丁達秀
- <全北> 林澤龍, 李敏五, 金炳邵, 李秀萬

來賓으로 保健社會部次官, 同齒醫務係長 金岐宇, 서울醫學會長, 大韓助産員會長, 大韓漢醫師會長등 參席下에 開催되어 金鍾玉(旭) 總務部長司會로 國旗拜禮, 愛國歌奉唱, 先烈에 對한 默念등 國民儀式이 있은다음 金溶璠會長의 開會辭가 끝나자 會順에 따라 感謝狀 및 表彰狀 授與式을 舉行하였는데 表彰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 ▲ 感謝狀 = 朴明鎮, 表彰狀 = 安鍾書, 林澤龍, 崔海雲, 金昌圭, 林榮均, 李迪柱, 樂喜工業社, 高麗機械製作所
- ▲ 保健社會部長官의 表彰狀 = 安鍾書, 金溶璠, 金然權등 雨雷같은 拍手裡에 表彰式이 끝난後 來賓祝辭에서 保社部長官(次官代讀) 서울醫學會長, 大韓漢醫師會長의 祝辭가 끝나자 來賓은 退場하고 林澤龍이 議長에 就任

하여 各部報告에 들어간다.

▲ 表彰의 件 = 表彰할 사람이 많고 또는 權威있는 表彰을 하기 爲해서 資格審査委員會에서는 年老者, 6年以上 會長을 歷任한 사람 事務의인 協助가 顯著한 사람等 3個項目에 該當한 사람만을 表彰하기로 하였다는 金鍾玉總務部長의 報告에 對하여 股仲基(全南)는 不滿을 表示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公文이 있었다라면 全南에서도 年老하고 功勞있는 盧基燮을 推薦하였을 것이다. 다만 會運營에 功勞있는 사람을 推薦하라는 公文이었기에 任員會決議로서 丁總務를 推薦한 것인데 中央에서 마음대로 取捨하였다는 것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 不當性을 指摘하자 崔海雲(慶北)도 이에 同調하여 中央에서 再審한다는 것은 地方會를 無視한 것이니 率直히 謝過하라고 要請한즉 李有慶副會長이 謝過하여 拍手.

▲ 過年度總會 會議錄을 朗讀하라는 徐丙瑞(서울)要請에 金溶璠事務長이 朗讀하고 있을때 地方代議員要請으로 中斷.

▲ 入齒業者를 講習시키 限地齒科醫師의 資格을 賦與할려는 保健社會部計劃을 本會에서는 法的根據가 없으므로 反對하고 審査委員의 委囑을 받았으나 辭退하였다고 金鍾玉 總務部長報告.

▲ 無齒醫村巡迴計劃書에 對한 丁達秀(全南) 質疑에 計劃書를 내주면 藥品이나 費用을 保社部에 要求하였다

고 金總務答辯.

▲ 大邱, 光州 등 兩地方의 齒大는 廢鎖되었으며 서울 齒大의 教育年限(6年) 延長件은 未決中에 있고 中央教育審議委員會에 齒科醫師 한사람을 參與시키자는 交渉은 아직 未了했다고 齒大教育延長特別委員會 立場에서 李有慶이 報告한 다음 OEC齒科顧問官 코티가 歸國後 그 後任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데 支障이 많다고 苦衷의 一端을 披瀝.

▲ 學會報告(李春根) 昨年學會에 120名이 出席하였고 30餘演題로 盛況을 이루었으나 學會誌를 發刊못함이 遺憾이었다. 學會費는 慶北에서 4萬圓이 入金되었을 뿐이니 學會誌는 姑捨하고 學會開催費用에도 憵憵에는 形便이라 今年에는 꼭 學會誌를 發刊할 作定이니 大韓會費와 分離해서 5月末까지 學會費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要望한다음 大韓齒科醫師會에서 3회에 걸쳐 無齒醫村診療를 하여 좋은 成果를 얻었다고 保健部報告.

▲ 決算報告=滿場一致로 承認.

▲ 地方實情報告=林澤龍(全北)은 全州 13萬人口에 <모구리>가 齒科醫師보다 數10배나 많아서 口腔衛生은 危機에 處해있으며 關係當局이 取締한다고 하나 그것은 口頭禪에 不過하고 日帝때와 같이 機械를 押收하고 拘束하는 法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에 뒤이어 昨年 6·9行事에 保健社會部에서 보낸 手當金(6萬圓)을 받으러 關係當局에 몇번 갔으나 令違이 되지 않았다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가 今年初에 또 갔더니 令違은 됐는데 期限이 지나서 울러보셨다하여 結局 못받았다는 報告에 場內笑聲.

李有慶(서울)은 會費徵收成績은 50%(會員 226名)에 不過하며 서울亦是 不正開業이 있어서 關係當局과 協調하여 15名을 摘發한바 있다고 報告.

任胃懃(忠南)은 앞으로 保健社會部來賓단은 끝까지 參席시켜주기 바란다고 要望한다음 不正開業에 對하여 民의 소리를 들어서 呼吸을 같이하고 官民一體로 取締한다면 좋은 成果를 얻을것인데 關係當局來賓이 간것은 遺憾이라고 말하자 任員席에서 保健社會部齒醫務係長 金岐宇를 가르키니 얼굴을 몰라 失手했다(場內笑聲)고 謝過하고 文章益(唐津)會員은 昨年 口腔衛生 強調週間中 1個月間에 걸쳐 20個校以上の 兒童을 自轉車로 歷訪診療하여 口腔衛生思想普及에 功勞있었음을 報告.

▲ 金岐宇一齒醫務擔當者로서 혼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는 形便이라고 人事.

▲ 下午 1時 10分休會(中食)同 2時續開

▲ 豫算案審議=會員 1人當年 3千6百圓(昨年과 同

額)에 依한 豫算案이 無難히 通過되자 學會費 1千 2百圓(每人當)을 5月末 또는 6月初까지 보내주면 곧 學會誌를 發行하겠다고 李春根 學會學術研究部長 거듭要請.

▲ 會館設置件=齒大 朴明鎮學長住宅(盆地 140坪, 建坪 80坪)을 寄贈받아 이미 大韓齒科醫師會所有로 登記했는데 修理費 2百萬圓을 5月末까지 檢出해주시기 바란다는 金溶濬會長 要請에 金昌圭(慶南)는 朴學長에게 感謝하면서 그 誠意에 報答하기 爲하여 慶南에 割當되는 修理費檢出에 努力하겠다고 말하고 股仲基(全南)의 서울 百萬圓, 地方百萬圓으로 負擔하자는 提案에 李有慶(서울)反對하고 張錫煥(서울)은 會館이 中心地帶가 아니므로 交通이 不便하다고 말하면서 修理費檢出은 會費徵收도 어려운 오늘날 不可能하다고 斷定. 李暉齋(忠南)은 今年에 一部만 修理하고 年次의 工事를 하므로써 修理費負擔을 2,3年間分割納付하자고 提案. 金相讚(慶南)은 銀行貸越을 받아 3年間에 갚도록 하자는 案을 提示. 任胃懃(忠南)은 貫를 받아 修理하자는等 意見이 百出하자 丁達秀(全南)討議終結을 要請하여 林澤龍議長이 3分間休會를 宣言하고 各地方代表와 熟議한 後 續開席上에서 股仲基案의 서울百萬圓, 地方百萬圓負擔動議를 秋章煥(慶北) 再請으로 採擇. (拍手)

▲ 會費徵收件=金昌圭(慶南)의 會費徵收에 積極努力을 傾注하자는 말에 이어 金相讚(慶南)은 會費를 안낸다고 해서 開業을 停止시킬 權限이 없고 無資格者開業에 2千圓程度의 科料로서는 防止하기 困難하다고 前提한다음 會費를 圓滑히 徵收하자면 國民醫療法을 改正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國民醫療法 第57,8條에 <醫師, 齒科醫師, 漢醫師, 保健員, 助產員은 所屬同業者會의 會則을 遵守하여야 한다>는 條文과 前述한 同業者會의 建議에 따라서 <地方長官은 營業停止處分>을 할 수 있는 條文을 插入하도록 國民醫療法改正推進委員會를 構成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에 金淳培(慶南)도 贊成하였으나 李有慶(서울)은 不正醫療業者에 對해서 2年以下の 禁錮刑條文이 있다고 말하고 金鍾玉總務部長은 醫療法施行令을 그렇게(金相讚案) 改正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其他에서 股仲基로부터 全南에서 開業하고 있는 <한영환>과 <김정주>의 資格確認을 乞고져 하였으나 時間關係로 公文을 提出키로 하고 慶南, 慶北에서도 建議案件이 있었으나 亦是 書面建議키로 決定한다음 金溶濬會長先唱으로 萬歲 3唱裡에 下午 3時 25分閉會.

▲ 秘苑參觀 大韓齒科醫師會 定期總會에 參席하였던 代議員一同은 大韓齒科醫師會 任員들의 案內로 秘苑을 參觀하고 昌慶苑에서 盛大한 懇親宴대접을 받았다.

## 大韓齒科醫師會 緊急臨時總會

大韓齒科醫師會 緊急臨時總會는 1957年 7月 13日 下午 3時 서울齒科大學 講堂에서 雨天임에도 不拘하고 各道代表와 代議員多數 參席下에 金溶璠會長 司會르 開催되어 熱烈한 討論이 展開된 後 7時 30分 崔海雲副會長の 閉會辭로써 圓滿히 끝마쳤다. 이날 議決事項과 聲明書는 다음과 같다.

1. 免許(限地) 交付計劃에 對한 反對決議案聲明書, 決議文등 滿場一致通過.

2. 本會의 決議를 無視한 會員에 對한 對策 本會의 推薦을 받아 保健部에 職을 가지고 있는 齒務係長 金岐宇 會員은 限地免許交付計劃에 있어서 本會의 反對決議를 無視하였으므로 引責辭退(勸告辭職)할 것을 決議하고 審査委員으로 本會精神을 違反한 者도 同時處罰할 것이라는 強硬論이 擡頭되었으나 該當者인 李鎬坤이 出頭하여 그 經緯를 解明하고 代議員들이 그 經緯를 參酌하여 今般에 限해 審査委員은 不問에 붙이기를 議決하였다.

3. 不正免許取得者 徹底調査의 件

本件은 全國一齊히 縱橫連絡하여 善處키르 하고 以上 各項은 實踐함에 있어 必要時는 會長이 有能한 會員을 登用하게 함과 同時에 任員에게 全權을 委任키르 했다.

### 聲 明 書

今般 保健社會部에서 1952年度 國民醫療法 公布와 同時에 法的으로 그 資格을 喪失한 倭政時의 所謂 入齒營業者를 아무런 法的根據도 없이 限地齒科醫師 免許를 附與한다 함은 우리 國民保健을 爲하여 寒心한 處事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入齒營業者라는 것은 倭政時 若干의 入齒技術을 習得

한 者를 齒科醫師가 없는 一定한 地方에서 入齒營業을 하도록 3年間期限로 그 免許를 附與하였던 것이며 3年을 經過하여 다시 免許交付를 받지 못할 時는 그 資格이 喪失되는 것이었다. 此營業者는 全然 醫學知識이 없는者이며 解放後 如斯한 制度는 先進國家에는 없으므로 그대로 存續시키는 것은 國家的으로 羞恥스러운 일일뿐 아니라 國民保健에 大端히 危險한 일이므로 軍政時 保健厚生部에서는 이들 入齒營業者를 一定한 期間의 醫學知識을 習得시킨 後 限地齒科醫師規定試驗에 合格한 者만을 限地齒科醫師免許를 附與하고 不合格者는 入齒營業者免許까지도 取消함으로서 入齒營業者制度는 完全히 廢止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保健社會部에서 法務部에 該當 法文解釋을 要求한 依賴文에 依하면 軍政時 臨時行政措置르 入齒營業者를 限地齒科醫師로 名稱을 變更하여 免許를 更新文付한 後 其他殘餘 既得權者에 對하여는 何等措置가 없었다는等 全然 그러한 名稱變更事實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任意로 文句等을 造作하여 가며 無資格인 入齒營業者에게 限地齒科醫師免許를 附與하고자 함은 그 意圖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任意로 免許를 附與한 醫療業者에게 國民은 安心하고 生命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處事는 國民保健에 一大危險을 招來케 됨으로 우리 大韓齒科醫師會에서는 緊急臨時總會를 開催하고 保健行政의 矛盾을 指摘함과 同時에 積極反對할 것을 決議하여 茲에 聲明하는 바입니다.

1957年 7月 13日

大韓齒科醫師會